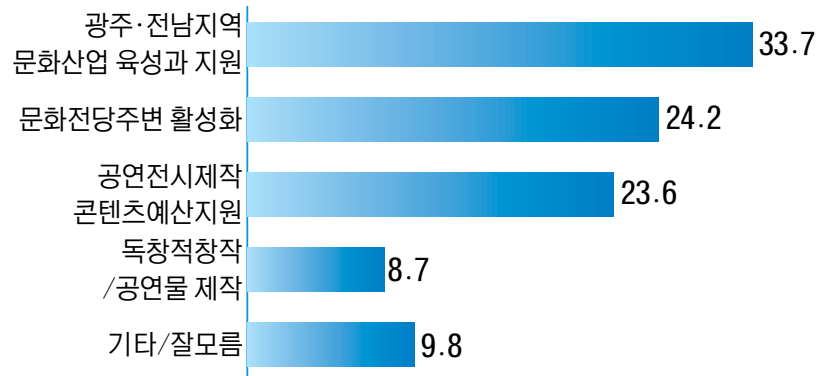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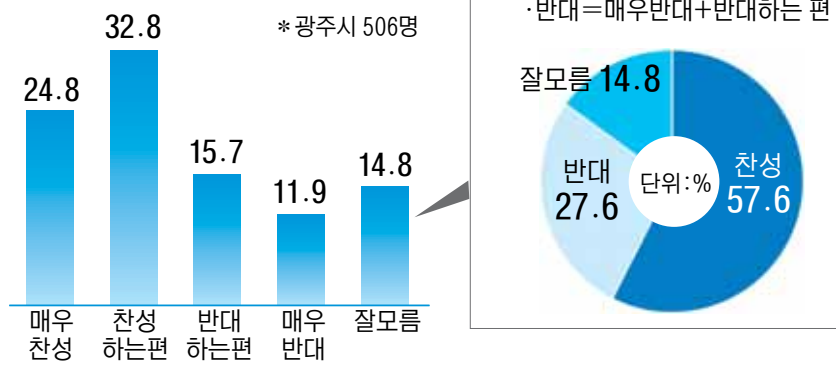


전남 도민 57.6%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해야”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시급 사항 (단위: %)



■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



데, 당선자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 77.8%인 14명은 방송통신탑도 군부대 이전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방송통신탑은 존치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전남지역 일부 당선자들은 해당 지역현안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해당 질문에 대한 유보 입장을 밝혔다. 응답자 중에는 방송통신탑의 경우 광주·전남의 지상파 방송 및 통신을 위한 시설로서 지역 방송통신 수신환경을 위한 대안을 마련한 뒤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당선자도 있었다.

무등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올해 첫 조사

■ 진행 상황 어디까지

무등산 정상부 경관 및 자연환경 복원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장애물과 중봉에 위치한 방송·통신탑 이설에 기술적 문제는 없다는 결론이 지난 2014년 말 나왔다. 지난 2013년 9월부터 1년간 조사한 결과 방송·통신탑 이전부지로는 장성군 불태산이 첫 번째 안으로 검토됐다. 공원구역 밖으로 방송·통신탑이 이전한다는 점에서 훼손지 복원 및 경관 복원 효과가 우수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지만 800억원에 이르는 비용이 걸림돌이었다. 중봉과 북봉에 설치된 방송통신탑을 장애물로 이전, 통합하는 두 번째 안은 비용(250억원) 면에서는 장점으로 작

용하지만 복원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 하지만 방송·통신탑 이전 논의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1년 이상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 3사와 KT가 무등산 1m를 1년 사용하는 대가로 채 100원(70원)이 안 되는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 정서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무등산 곳곳에 솟은 방송·통신탑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가 올해 시작됐다. 거대한 철탑 덩어리가 무등산 경관 뿐만 아니라 생태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무등산에 방송·통신탑이 들어선 이후 첫 조사다.

문화전당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지난해 11월 개관한 지 4개월째에 접어들었다. 문화전당은 문화중심도시의 문화발전소로서 기대를 모았지만,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핵심 인프라로서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동구 주민, 전당 주변 활성화 최우선 과제로

■ 시민에 물어보니

광주시민 10명 중 3명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으로 광주·전남지역 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을 꼽았다. 광주시민 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응답자의 33.7%가 지역 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광산구 주민들은 독창적 창작·공연물 제작(22.0%)을 우선으로 답했다.

이밖에 독창적 창작·공연물 제작은 8.7%,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9.8%였다. 광주시민은 지역구별로 의견 차이가 있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소재한 동구 지역민들은 무엇보다 문화전당 주변 활성화(40.3%)를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꼽았고, 동구와 인접한 남구 주민들은 지역 문화산업과 육성·지원(42.0%)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광산구 주민들은 독창적 창작·공연물 제작(22.0%)을 우선으로 답했다.

“전시·제작 콘텐츠보다 문화산업 육성 시급”

■ 국회의원 당선인에 물어보니

광주·전남 당선자 대다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를 위해서 광주·전남 지역 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내다봤다. ‘당선인께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를 위해 무엇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66.67%인 12명은 ‘광주·전남지역 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이라고 답했다.

이해 응답자의 22.22%인 4명은 ‘공연·전시제작 콘텐츠 예산지원’이라고 답했다. 나머지 1명(5.55%)은 ‘문화전당 주변 활성화’라고 꼽았다. 다만 ‘독창적 창작이나 공연물 제작이 시급하다’는 응답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응답자 대다수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를 위해서 전시·제작 콘텐츠보다 이를 아우르는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본 것이다.

관람객 모으는 킬러 콘텐츠 없어 개관효과 미미

■ 진행 상황 어디까지

대표적인 지적은 문화전당이 표방해온 기획·창작·제작, 구현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관람객을 끌어모으는 킬러 콘텐츠가 없어 개관효과를 거두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나마 문화창조원, 문화정보원, 아시아예술극장, 어린이문화원 4개원 가운데 어린이문화원만이 가능성을 엿보게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25일 문을 열었음에도 사실상 문화전당은 전면 개관한 상태가 아니다. 광주행정 단체 등이 옛 전남도청 별관 5월 유적 등에 대한 보존을 촉구하면서 민주평화교류원의 전시 작품 설치 등 작업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문화전당이 개관한 뒤 콘텐츠 구축에 산 등 재정지원도 줄고 있어 연착륙에 걸

림돌이 되고 있다. 올해 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예산은 모두 572억7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30여억원이 줄었다. 문화전당 5개원의 전시·공연 콘텐츠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창작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문화전당과 지역산업과의 파급효과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문화창조원에서 전시되고 있거나 전시가 계획된 장르가 대부분 특정 시각예술(미디어 아트) 위주여서 실제 문화콘텐츠 산업에 접목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또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5대 전략 콘텐츠(공연·디자인, 에듀테인먼트, 첨단영상, 게임, 애니메이션) 장르와 연관성도 크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목포~제주 해저터널

올들어 폭설과 강풍으로 제주공항의 무더기 결항 사태가 잇따라 빚어지면서 내륙과 제주도를 연결하는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서남권 찬성 60.5%, 광주근교권 62.3%

■ 시민에 물어보니

해저터널 건설에 지역민들의 찬성의견이 과반을 넘었다. 전남 지역민 506명으로 대상한 이번 조사결과, 57.6%가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에 찬성했다. 찬성하는 편으로 답한 응답자가 32.8%로 가장 많았고,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률은 24.8%였다. 반면 반대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15.7%였고,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률이 11.9%로,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에 반

대한 의견은 27.6%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4.8%였다. 지역별로는 순천·광양시, 곡성·구례군 등 전남 동북권(49.0%)을 제외한 서남권(목포시, 해남·완도·진도·영암·무안·신안군)과 광주근교권(나주시, 화순·담양·함평·영광·장성군)은 각각 60.5%, 62.3%로 높았다. 동남권(여수시,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59.1%였다. 성별로는 해저터널 건설 찬성의견에 남성(60.6%)이 여성(54.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응답자 17명중 10명 긍정적 ... 반대 1명

■ 국회의원 당선인에 물어보니

광주·전남 당선자들은 목포~제주해저터널 건설사업에 대해 부정적일까 아니면 긍정적일까. ‘당선인께서는 목포~제주해저터널 건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8.89%인 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3명(16.67%)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17명 중 10명은 해저터널 건설에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셈이다.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5.55%인 1명뿐이었다. ‘당분간 추진해선 안 된다’는 의견과 함께 기타 의견을 제시한 당선자도 있었는데, 이들은 경제성 및 사업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토부 타당성조사 용역... 제주도 반대로 막혀

■ 진행 상황 어디까지

이낙연 전남지사가 주도하고 있는 목포~제주 해저터널에 대해 제주도 일부에서는 반대 여론도 있었으나 제주 제2공항 건립 결정 이후 여론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 전남도의 판단이다. 전남도는 이 사업이 ▲국가균형발전 ▲국내 건설업 및 경기 부흥 ▲전남 및 제주 관광객 증가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목포~제주 해저터널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중차적인 목포에서 해남을 거쳐 보길도, 추자도를 지나 제주도에 이르는 연장 167km의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남~보길도) 28km, 해저터널(보길도~제주도) 73km로 구성되며, 사업비는 약 16조8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2007년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완도~제주 간 해저터널 건설을 제안한 후 국토교통부가 타당성 조사 용역까지 했으나 경제성 미흡, 제주도 반대 등으로 지지부진했다. 전남도는 상황이 변한데다 국내 제2차 교량망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오는 6월 고시예정인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창사 64주년

대한민국 농수산물식품의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aT가 광주전남혁신도시에서 새롭게 출발합니다!
국민 모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식품!
이제 aT가 농업인의 터전에서 농업인과 함께 그 희망을 만들어갑니다.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행복한 창조농업, aT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작, 행복한 변화
aT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 대표전화 061-931-1114